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5/6월호
2022



Photo by Larry Lamsa, "Pilgrims -Santuario de Chimayo"

부활절 성 금요일 치마요 교회로 가는 순례자의 행렬

CONTENTS

호외광고: 2022년 한미장학재단
장학생선발공고--- Page 35

뉴멕시코 교민여러분! 윤태자 : 2	Anti-Semitism과 이스라엘 신경일 : 12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인사 이수신 : 3	나의 존재 이유 이성구 : 13
지난 3-4월의 국내외 주요뉴스	자기 부인 (自己否認) 나정용 : 14
한국대통령선거/취임/LG공장 아리조나에 : 5	역사는 숨을 쉬고 있다 나정자 : 16
한국어 교사 현지연수 강사 소개 : 6	대법원 초안 유출로 인한 파문 VOA : 18
UNM 졸업생 기부/한지혜양 피아노연주회 : 7	영어이야기 20 (전화기의 # Sign) 이상목 : 20
알버커키 한인 우크라이나에 성금전달 : 8	고대 상나라와 한국과의 관계 (下) 한승우 : 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과 : 9	세례를 받기 앞서 성종근 : 24
모르고 짓는 죄 이정길 : 10	봄날 모녀여행 - 칸쿤 송은숙 : 25
무엇이 중헌디? 김기천 : 11	뉴멕시코 한인교회/한인업소안내 : 31-34

온라인 '광야의 소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의 E-mail 주소를 알려주시면 매호 발행시에 Link를 보내드립니다.
QR Code(33페이지)를 모바일 폰에 보관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편집부 Email 주소 : voiceofnm@gmail.com

한인회 소식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



윤태자

제19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 날씨에 여러 가지 봄꽃들이 우리들의 가슴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앨버커키의 봄에는 한차례 치루는 행사처럼 추운 날씨와 심한 바람으로 냉해도 입고 먼지로 곤혹스럽지만, 그것은 한때고 온갖 새싹이 돌아서 나는 봄은 생명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계절입니다.

지난 한인회 소식과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회 후원금과 한국학교 등록금 제외 동포재단 지원금 합쳐서 7만 불이 넘어 세금 보고는 FPM & Associates LLC에 맡겨 2021년 세금 보고를 3월 말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 시기를 12월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야 회장 임기 마칠 때 세금 보고까지 마칠 수 있어서입니다.

3월 22일에 영사업무가 있었고 여권,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국적상실 국적이탈 등 총 66건의 업무를 마쳤습니다. 작년 12월에 영사업무가 있는

지 3개월 만이라 작년 절반 정도의 업무라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4월에 한인회관 외벽에 전기공사를 마쳤습니다. 낡은 건물이다 보니 배관에 문제가 생기고 소소하게 손가는데는 생기지만 내 집을 가꾸듯 소중하게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5월의 일정으로 15일부터 18일까지 미주 총연합 합동대회에는 제가 참석합니다. 5월 21일에는 한국학교 교사 연수가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강사분들을 초청하여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한글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인회에서는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뉴멕시코 한인들의 역사 기록을 위키백과로 만들기 위해 5월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버이회는 4월6일에는 갈릴리 장로교회에서 식사 후원을 해주셨고 감리교회 여선교회에서 250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4월 20일에는 최재훈

김현지 가정에서 식사 후원을 했고 어버이날을 맞아 5월 4일은 저의 집에서 식사 후원을 하며 5월 18일에는 한인회에서 후원합니다. 6월 1일은 이희수 씨가 어버이회 식사 후원을 해주십니다. 어버이회는 조은순 어버이회 회장님과 강은선 부회장님께서 전화 연락과 재정관리를 해주시며 수고하고 계십니다.

한인회에서 부탁드릴 것은 한인회 정회원 등록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뉴멕시코주 한인회 정회원 가입 신청서는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복사본이 한인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인회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더욱 성장해 갈 것입니다. 임원진들은 뉴멕시코 한인회가 신뢰받는 한인회가 되도록 성심성의껏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뉴멕시코 한인회장
윤태자 ■

한국어 교사 현지연수 안내 공고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는 재외동포 재단과 한인회의 후원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님을 초청하여 Albuquerque에서 한국어 교사 연수를 할수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학교 교사는 물론 알버커키외 다른 지역에서 한글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나 가정에서 직접 한글을 가르치는 학부모님등 한글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분들을 초청합니다. 연수에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학교 이메일 nmkoreanlanguage@gmail.com 혹은 505-515-4677에 텍스트로 성함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5월 21일 셋째주 토요일

장소: 뉴멕시코 한국학교

92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참가비는 무료이며 맛있는 점심이 제공됩니다.

추후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면 홈페이지 kaanm.com 한국학교에 공지하겠습니다.

한국학교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인사



이수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뉴멕시코 학부모 및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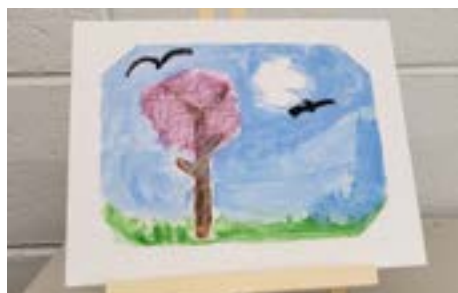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안겨주었던 악성 바이러스가 서서히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며 우리 주위를 맴도는 바이러스들이 완전히 사라져 오직 우리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 봄학기는 5월 7일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단편 연극(별주부전) 공연, 봄학기 수료증 및 졸업장 수여식과 종강 파티로 막을 내립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아동반 한글 수업은 없고 8월 초쯤 여름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호에 공지하겠습니다. 봄학기 동안 열심히 한글을 공부한 어린이들과 무한한 사랑과 물심양면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 학습 열기를 북돋아 주신 학부모님, 더 알찬 수업 진행을 위해 봉사해준 우리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열정적으로 흥미진진하게 학습 지도를 해주신 모든 한국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부터는 성인 한글반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 학교 친구, 직장동료, 친지 등 한글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5월 21일 토요일에는 예정대로 한국어 교사 현지연수를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오랫동안 한글 교

사를 하시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 강사님들을 초빙하였습니다. 한국학교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태에서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을 초청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학교 이메일 (nmkoreanlanguage@gmail.com) 로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큼한 5월을 맞아 교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기원합니다. ■



뉴멕시코 한국학교

2022 가을학기 한글반 개강 및 등록안내

가을학기 한글반 개강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글 학습의 혜택과 함께 한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한인학생들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 수업료: \$165.00 (둘째 \$150.00, 셋째부터는 무료)
- 등록비: \$30.00 (조기등록시 면제 2022년 7월 23일까지 등록시)
- 수업요일 및 시간: 유아 및 초등학생반: 매주 토요일 오전 9:10-12:30
 - 중고등학생반: 추후 통지
 - 성인반 1 (초급, 중급, 고급반) 매주 금요일 오후 5:30-7:30
 - 성인반 2 (초급, 중급, 고급반) 매주 토요일 오후 3:30-5:30
- 한 학급당 최소인원이 5명입니다. (5명미만일 경우 통합 또는 취소됨)
- 수업기간: 8월 26일 부터 12월 3일 (APS 가을방학주와 추수감사절 주는 수업없음)
- 학교위치 및 주소: NM Korean Language School
 -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 *문의 및 상담: 이수신 교장: 문자 및 전화: 505-515-4677
- 이메일: nmkoreanlanguage@gmail.com
- Web: kaanm.com (홈페이지 상단 한국학교)
- 오리엔테이션 및 학급편성: 8월 20일 토요일
 - 오전 10:00-10:50 (성인반)
 - 오전 11:00-11:50 (유아, 초등, 중고등반)
- 수업료 및 등록비 납부방법: 등록신청서 작성후 체크나 머니오더 동봉후 우편으로 납부 (pay to the order of: KANM, 책 왼쪽하단에 학생이름 기재요망)
 - 등록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 혹은 KANM.com 한국학교 에서 프린트 가능.
- 환불없음, 단 학급취소시 전액환불
- 수업은 대면으로 하고 온라인 수업도 개강합니다.
 - 원하시는 수업란에 in-person 혹은 zoom에 표시하세요.
- 온라인 수업시에는 @gmail.com 이메일 사용필수

한국학교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주정부 보건국의 지침을 따릅니다.

NM Korean Language School 2022 Summer Classes Information

We are excited to announce the Summer 2022 semester for Korean language classes. The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is offering Korean language courses in-person for all levels. Learn how to speak Korean, write in Hangeul, and understand Korean culture and history in our fun, engaging classes.

1. Tuition: \$110.00
2. Registration Fee: \$30.00 (No fee for the early bird registration by May 15th, 2022)
3. Class hours:
 - (1) Adults option 1: Beginners, intermediate - Fridays 5:30PM-7:30PM
 - (2) Adults option 2: Beginners, intermediate - Saturdays 3:30PM-5:30PM

If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is less than 5, classes may be merged or canceled

If registered number of students exceeds classroom capacity, classes will be added
4. Summer class schedule: Jun 3rd-July 30th (No classes July 1st and 2nd to observe 4th of July, independence day)
5. School location and mailing address: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6. Have questions or want to submit registration forms? Contact Sooshin Lee, the principal of the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Text or call: 505-515-4677
Email: nmkoreanlanguage@gmail.com
Website: kaanm.com (click language school at top banner)
7. Orientation and class formation will be held at the Korean Language School: During the first class hours
8. Registration and payment: Please fill out the form and mail it with payment (check or money order only; no cash)
9. No tuition refunds will be credited to future classes except for canceled classes.
10. All classes will be held in-person. No zoom classes during the summer
11. Adult students can choose option 1 (Fridays) or option 2 (Saturdays); please indicate your preference.

The Korean Language School will follow the guidelines of the CDC and the NMDOH

지난 3-4월의 국내외 주요뉴스

한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재외선거는 2022년 2월 23일~2월 28일, 사전투표는 2022년 3월 4일과 3월 5일, 본 투표는 2022년 3월 9일 각각 실시되었다.



2020년에 전 세계에서 유행이 시작된 코로나 19 이후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인 제20대 대선에는 모두 14명이 입후보 하였으며, 이후 2명은 중도 사퇴하였다. 주요 후보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등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3월 4일과 3월 5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 투표 투표율은 전국 기준 36.93%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 사전 투표가 도입된 2014년 지방 선거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다. 사전 투표와 더불어 3월 9일의 본 투표를 합친 최종 투표율은 전국 기준 77.1%를 기록하였다.

윤석열 당선자가 48.56%를 득표, 이재명(득표율 47.83%) 후보에 0.73%p를 앞섰다.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의 출신으로, 총장 사퇴 1년여 만이자, 정계 입문 9개월 만에 당선되었다.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제20대_대통령_선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

5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행사가 열린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취임식 당일 0시엔 보신각에서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진행된다. 같은 날 오전 윤 당선인은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해 참배한다. 같은 시각 국회의사당에선 식전 행사가 진행되며, 오전 11시께 윤 당선인이 도착하면 취임식 본식이 시작된다.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기념행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정풍자 뉴멕시코 전 한인회장(7대)이 취임식 초청을 받았다. 참석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정 풍자 전 회장은 초청받은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자신이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수고한 일에 비하면 과분한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초청에 응하지는 못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지난 2월 3일, 정풍자전회장은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미주 선거대책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임명되었었다. 선거기간에 정풍자 전 회장은 카카오톡,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윤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는 일에 봉사하며 미주 지역 선거대책위원회를 위한 자문으로 봉사했었다.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자료사진)

한국의 LG 아리조나에 배터리 공장 건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LG Energy Solution)은 24일 아리조나주 피닉스 동쪽에 있는 퀸크릭(Queen Creek)에 1조7000억원(\$1.39 billion)을 투자해 총 11GWh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cylindrical-type battery)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2분기(4~6월) 착공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한다. 완공되어 정상가동이되면 일자리 2800개를 창출한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EV)스타트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무선 전동공구 등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공장을 통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북미 원통형



LG Energy Solution 공장건설 예정지 배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권영수 부회장은 “이번 공장 건설로 성장세가 뚜렷한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고객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rce: 동아일보 2022-03-24, InsideEVs(3-24), ABC15 Arizona TV

한국어 교사 현지연수 안내 및 강사 소개

일시: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3시

장소: 뉴멕시코 한국학교 (한인회관)

전문강사 1: 채은정 선생님 (약력 이하 참조)

전문강사 2: 이해진 선생님 (약력 이하 참조)

초청강사: 용승 선생님 LA감사 한국학교 교장/미주 한국학교연합회회장



성명: 이해진

• 소속: 나성열린문한국학교

■ 학력사항

- B.A. in Accounting from University of South Florida
- MBA fro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Acc fro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 사역 경력 사항 .

-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KOSAA) 임원 5년
- Thinking Tree Education Foundation 비영리 설립 및 운영
- Glendale School District Korean Emerging program 강사
- Children's Ministry 교사 9년
- 한국학교 한국어 교사 및 강사 20년

■ 자격증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성명: 채은정

■ 학력사항

- FTBSP(쌍파울로 침례교신학교)졸업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숙명여자대학교 보육교사 졸업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원양성과정 이수
-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어·다문화 졸업

■ 사역 경력 사항

- 한국학교 한국어 교사 및 강사(15년)
- 종이접기 강사
- KOSAA 교사 연수 강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노회 교사 강습회 강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국 공과 집필
- 교회 어린이 사역 (27년)

■ 자격증 및 수료 사항

- 보육교사 2급 자격증(보건복지부)
- 종이접기 자격증(고려탁종이협회)
- 독서지도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보건복지부)
- Prepare & Enrich 커플 상담 자격 취득
-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국립국어원 / 문화체육부)
-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자격증(고려사이버대학교 / 법무부)

우크라이나 소식

유엔, 올해 우크라이나 난민 830만 명 예상

유엔난민기구(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올해 약 83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2022년 4월 26일(화) 대변인이 말했다.

샤비아 만투(Shabia Mantoo) 유엔난민기구 대변인은 이날 유엔 뉴스 설명회에서 770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과 500만 명 이상의 국경을 넘은 난민을 포함해 두 달 동안 12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났다고 말했다고 AP 등 외신이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만투는 설명회에서 “위기의 규모, 탈출하는 사람들의 신속성은 최근에 본 적이 없다.”라며 “시리아는 현재 세계 최대의 난민 위기로 남아 있으며, 680만 명이 탈출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의 공포와 죽음에 직면하여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기약 없는 피란길에 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늘어나면서 유엔난민기구를 비롯해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선교단체, NGO(비정부기구) 등이 적극적으로 난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활동에 힘쓰고 있다.

출처 : <http://www.kosinnews.com>

■ 수상 경력 사항

- 노숙자 프로그램 개발 수상 (동작복지재단)
- 종이접기 작품 공모전 수상(한국종이접기협회)
- 제3회 우수 교재교구 창작 공모전 특별상 수상 (KOSAA)
- 제4회 우수 교재교구 창작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KOSAA)

지역소식

UNM 졸업생, 모교에 500만 달러 기부

뉴멕시코대학교(University of New Mexico) 공과대학에서 2000년대 초에 토목 공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한 Doug Campbell씨는 졸업당시 교수 중 한 분인 Gerald May교수를 기리며 학과 이름 변경을 위해 5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약속했다.

메이(May) 교수는 토목공학과 교수, 공과대학 부학장, 학장 및 UNM대학교 14대 총장을 역임한 교수로서 “그는 믿기어려울 정도로 겸손했고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라고 Campbell씨는 알버커키저널 신문기자에게 말했다.

May교수는 2002년 UNM에서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Albuquerque에 살



사진: Gerald May(왼쪽), Doug Campbell (오른쪽 위), Mahmoud Taha (오른쪽 아래)

고 있다. 알버커키 출신인 UNM졸업생 캠벨(Campbell)씨는 콜로라도 루이빌에 위치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 개발업체인 Solid Power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이다. 그는 아직도 콜로라도에 살고 있지만 “나는 (내가 얻은 수익을) 우리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했고 우리 지역 사회는 언제나 알버커키입니다.” 라고 말했다.

지역소식

UNM Kellor Hall에서 한지혜 양 피아노 연주회

UNM 음대를 졸업한 Esther Han(한지혜)양이 지난 3월5일 UNM Keller Hall에서Andreas Landstedt와 피아노 연주회를 가졌다. 에스터양은 New Mexico School of Music에서와 개인 Studio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며 자신은 석사 과정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바요린 연주자이기도 해서 Chamber



and Orchestral Ensembles에서 바요린도 연주해왔다. 또한 알버커키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도 봉사하고 있다. 두사람의 피아노 연주회에서 발표한 곡은 모두 다섯곡이다. 순서의 마지막 5번째의 곡은 지혜양의 음대 지도 교수인 Falco Stainback 교수가 작곡한 곡으로 독일 Lindlar에서 열린 피

아노 페스티벌에서 2019년 지혜 양이 두 번 연주했던 곡이다. 연주회를 마치고 난 후 리셉션에서 슈타인백 교수는 자기가 작곡한 곡을 훌륭하게 연주해 준 제자가 자랑스럽다고 손님들과의 대화에서 말했다. 이날의 연주녹화 영상은 유튜브에 UNM Music 채널에 올려져 있다.

- Youtube UNM MUSIC Channel
https://youtu.be/_ucHunN7vYU
 연주곡목
 1. Duettino Concertante nach Mozart
 2. Bilder aus Osten
 3.Elegie for two pianos
 4. Vocalise No. 14
 5. Slapstick Variations for two pianos(1998)



지혜양과 부모(한승우(부), 한은영(모))

UNM 공과대학 현 토목공학과 학과장인 Mahmoud Taha교수는 이 500만 달러의 자금이 교수진 모집, 우수한 교수인력 유지, 연구 시설 업그레이드, 해외 유학 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한 대학원생 유치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금에 대한 UNM 보도 자료에서 메이 교수는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가장 보람 있는 역할”이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보도자료에서 그는, “UNM에서 이렇게 명석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

어서 영광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UNM 이사회는 과 호칭을 Gerald May Department of Civil,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 부서는 서약금이 최종 지불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식적으로 이름이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약기사 출처 Albuquerque Journal 2022.3.30 (칼 크나우프)

지역소식

알버커키 한인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동포에게 성금 전달

알버커키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러분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송금한 사실을 독자의 제보로 '광야의 소리' 편집부에서 뒤늦게 알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동포를 위해 성금을 보내는 일을 성사한 사람은 전 한인회 부회장직을 맡았던 임낸시 씨와 요리 강습회의 강사로 알려지기도 한 최신옥 씨 두분이다. 두 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TV 뉴스로 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작은 액수라도 성금을 보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선 가까운 친구들

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한 것이 의외로 좋은 호응을 얻어서 총 53명으로부터 1,300불의 모금을 달성하여 이를 송금했다고 한다.

임낸시 전 부회장에게 성금을 모으게 된 동기를 전화로 물어보았다. 임전 부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차별 포격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너무나 슬펐다고 말하는 최신옥 씨의 얘기를 듣고 자신도 우크라이나 동포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두사람은 이웃 친구들에게 성금을 모아 보내는 일을 해보라고 나섰다고 한다. 임낸시 씨는 "이렇게 많은 여러분이 호응해줄 것을 미리 알았다면 조금 더 홍보도 해서 더 많은 한인으로부터 성금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한인들의 협조를 과소평가해서 자주 만나는



임낸시



최신옥

친구들에게만 부탁을 했던 게 조금 아쉽네요"라고 하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을 기뻐하며 협조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뜻을 밝혔다.

성금을 보내야 할 적절한 주소를 얻기 위해 LA영사관의 총영사님께 문의한 바 서울에 있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주소를 주셔서 그곳으로 \$1,300의 수표를 3월 25일 두 분의 이름으로 만들어 송금했다고 한다.

아래의 글은 성금과 함께 보낸 기탁자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한국어로 번역한 글이다. 원문과 기탁자 명단은 첨부한 그림파일에서 볼 수 있다. ■

To: Embassy of Ukraine in the Republic of Korea
5 March 2022

We are a few Korean-Americans from Albuquerque, New Mexico (USA). With what is going on in the world today (ex: the devastating events happening in Ukraine) we want to offer our aid.

Our hearts go out to all the people affected in these difficult times. We wish there was more we could do to help bring peace to the world and bring aid to those in need.

With this global pandemic and now these catastrophic events we would like to lend a hand and help where we can.

We send these donations with our deepest condolences, support and love.

In these trying times, we must all stand together.

최성희	위정익	안태경	신광승
최신옥	신지영	서이영	채전자
김성신	정한나	애리	이지숙
임정미	신옥주	변명희	이홍
정관옥	최민애	권종파	이재영
이덕녀	임정아	임은주	김래연
이순분	지거모부	소하정	윤동주
고덕호	이은주	김동정	송홍도
최순덕	박애나	이지선	윤정애
윤세스터	이성현	이주인	남지연
윤제니퍼	hope권	경진광	서희정
윤다니얼	앤절라	김순제	
윤석준	김혁칼	Debbie Black	
신진희	이민순	조영애	Total \$1300.00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으로 2022년 3월 5일

우리는 미국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의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에 대해 우리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 받고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데에 도움이되며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으로 어려운 중에있는 이때에 재앙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깊은 애도와 지지 및 사랑을 담아 이 기부금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뭉쳐야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과

<2월24일 -5월3일 기간>

2월24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군사 작전'을 지시하여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다.

2월25일

-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가 총동원령을 승인했다. 대상은 18~60세 남성 인구 전체이다.
-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러시아군이 완전 점령하였다.
- 남부 자포리자 주 제2의 도시인 인구 15만의 멜리토폴 시가 러시아군에 점령되었다.
- 러시아에서 '반전' 시위로 797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2월26일

-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피를 제안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거절하며 수도 키이우에 남을 것이라 하며 키이우 시민과 국민들의 사기를 독려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게 6억 달러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네덜란드가 200개의 스팅어 지대공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터키가 러시아 전함의 흑해 통과를 차단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군사와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2월27일

-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러시아군의 피해정보를 발표했다. 4300명 전사/항공기 27기/전차 146대/ 장갑차 706대
- 독일 베를린 길거리에서 50만 명의 시민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나 침공 항의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며 시위했다.

-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로 기록된 안토노프 사의 An-225가 키이우 근처의 호스토멜 공항 격납고에서 러시아 군의 포격으로 파괴되었다.

2월28일

-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천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러시아 국방부는 핵전력 강화 태세에 돌입했다. 이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 가동되는 조치이다.
- 우크라이나에서 국제 군단이 창설되었다.

3월1일

-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연합 가입 공식 신청서에 최종 서명했다.
- 일론 머스크가 지원한 인터넷 용 스타링크 안테나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 유럽 의회에서 화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여당 인민의 종지도자가 우크라이나의 투쟁과 유럽의 단결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통역한 동시통역사의 반응 또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국토와 자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입니다."라는 대목에서 감정에 북받쳐 울먹거리는 통역사의 반응은 EU 의회의 기립 박수를 이끌어냈다.
- 40마일(약 64km 정도) 길이의

러시아군 수송대가 키이우로 이송 중이다. 미국은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군 전체의 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월3일

- UN 총회의 러시아 침공 규탄안 채택표결 및 러시아 철군요구 결의안이 찬성 141 반대 5 기권 35로 통과되었다. 반대한 국가는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시리아,



A children's hospital in Mariupol after Russian airstrikes (Source: Wikipedia)

에리트레아다.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이번 전쟁 최초로 러시아군에서 장성급 장교 전사자가 나왔다. 전사자는 러시아 제41연합군 부사령관 안드레이 수호베츠키소장이다.
-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월 24일 침공이 시작된 이래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 9,000명이 사망했다고 목요일 아침 밝혔다.

3월4일

- 한국에서 시민 단체들에 의해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개최되었다.
- 한국ROTC중앙회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모금한 6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7페이지로 계속>

수필

모르고 짓는 죄

미국이 봉착한 커다란 사회 문제는 정계에서 아주 뚜렷하며, 대중의 일상 생활에서도 역연히 드러나고 있다. TV의 광고 방송, 인터넷, 휴대용 전화 따위에 의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그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관과 실제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거나 들은 것과 진실의 차이 즉 옳고 그름이나 같고 다를 것을 가려서 아는 능력의 상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진실을 압도하는 잘못된 정보의 늪에 빠져 사회 전반에 불신과 오만이 한층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것이 분간 능력을 더 저하시켜 아직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 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직업적인 싸움꾼의 말을 그저 옳다고 믿고, COVID 예방약의 접종을 거부하며, 사람에 사용하도록 만든 예방 주사를 맞는 대신 말이나 소에 사용하는 광범위 구충제 ivermectin을 COVID-19의 치료제로 사용한다. 자기는 과학자들을 믿지 않는다고 악다구니를 퍼부은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즉시 병원에 입원하는 실정이다.

과학 기술이 전에 없이 우리의 삶에 두루 스며들었다. 그 바람에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안락하고 풍족하게 산다. 반면에 그러한 삶은 복잡하며, 때로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한다. 어떤 사안을 쉽게 분석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때로는 겁을 내며 살고 있다. 그렇다고 변화가 모두 발전적인 것도 아니어서, 어떤 것을 믿어

야 할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과학은 바로 그 때문에 존재한다. 우리가 믿기로 작성한 사실이 자연 법칙의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과학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과학적인 방법은 흔히 자명하지 못하고, 환각을 일으키게 하며,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로 일반인들을 유도하여 고통을 받게 한다.

일반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은 오래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17세기 초에 갈릴레이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다. 뿔다가 지는 해가 지구를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구가 자전하는 느낌도 전혀 받을 수 없어서,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믿기 어려웠다. 일반 상식에 위배되는 사실을 믿으라고 요구한 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영국의 권위있는 의학 전문 저널 Lancet이 1998년에 발간한 책에는 전염병을 예방하려고 사용하는 주사액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논문이 실렸다. 뒤늦게야 그 내용이 전혀 신용할만한 가치가 없음을 확인한 잡지사는 곧바로 그 논문을 폐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약-자폐증 연관성은 전문가도 아닌 소위 유명인들의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고,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퍼지고 말았다.

요즘에는 기후의 변화 등 유사한 논쟁이 너무 잦다. 중요한 과학적 지식이 조직적이면서 때로는 격렬하기도 한 저항에 부딪치고는 한다. 회의론자들이 자신들의 정보원을 맹신하



이정길

수필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고,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를 자의대로 이해한 나머지 전문가들의 총의에 전쟁을 선포한다. 하지만 2020년에는 COVID-19을 맞이한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거액을 투자해서 위험에 대처했다. 그 능동적인 대처가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치명적인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 가용한 자원과 의지력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하면 어떤 것이 가능한가를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COVID-19 유행병이 미국에 번지기 시작했을 때 수백만 미국인들이 즉시 길잡이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의사 앤소니 파우치이었다.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의 소장인 파우치는 36년에 걸쳐 여섯 명의 대통령을 보좌한 사람이다. 유행병이 고개를 들었을 때 진실을 가지고 앞에 나섰다. 그는 자기의 말을 듣기 좋게 꾸미는 사람이 아니었고, 정치인들의 압력에 굴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하기 어려운 말이라도 정직하게 그리고 생명을 구한다는 하나의 목적에서 진실 오직 진실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그 용감성과 성실성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던 것이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나를 놀라게 했다. 말라리아의 치료에 특효를 나타내는 클로로퀸으로 COVID-19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 힘을 가진 의사들이 식품 의약품국 FDA에 압력을 넣어 사용을 허가해 주지 못하게 한다. 파우치가 그 의사들 중의 하나이며, 예방약을 제조하는 회사 모더나에 거액을 투자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11페이지로 계속>

칼럼

무엇이 중헌디?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며칠 전 알버커키 서쪽 하늘이 뿌옇게 되더니 몹시도 세찬 모래바람이 불었습니다. 항상 맑고 고요한 하늘만 바라보다가 보게 된 드문 현상이었지요. 주차장을 잠깐 거닐었을 뿐인데 더구나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안에는 흙가루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출구 문은 거센 바람을 견디지 못해 반쯤 열려 있었지요. 다가가서 보니 문을 지탱하던 쇠가 바람의 힘에 구부러져 내려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의 힘으로 닫히는 교회 입구 문도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닫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으로 밀쳐서 겨우 닫아놓았지요. 알버커키 전체를 덮어버릴 듯이 흙먼지를 일으키는 모래바람은 교회 모습조차도 뿌옇게 가려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모래바람은 멈추어 버리고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래바람과 같은 코로나 전염병은 사회생활 뿐 아니라 교회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내에 모든 일들이 직접 만나는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지요. 우리교회

예배는 대면 예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직접 만나는 모임들이 금지되었습니다. 식당이나 영화관이 문을 닫았고 직장도 출근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지요. 교회 모임도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 드리는 대면예배도 금지되었지요. 코로나의 거센 바람이 교회를 없애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교회는 나름대로 인터넷 예배라는 새로운 출구를 찾기 시작했지요. 인터넷 화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매우 익숙한 예배 방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완화되면서 지금은 대면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 예배”가 실행되고 있지요. 코로나 사태 이전을 돌이켜보면 행사나 예배가 모두 직접 만나는 모임들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임원 조직이나 행사 계획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요. 좀 더 효율적인 교회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부서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임원들을 세우며 또한 다양한 모임

들이나 행사들을 계획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행정을 위한 체계적인 임원 조직이나 훌륭한 연중 계획들이 없으면 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어떤 교회 행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만이라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 곧 인터넷 예배였지요.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소그룹 예배인 속회도 인터넷으로는 모일 수 있었습니다. 교회 행사를 위한 활동도 할 수가 없자 임원 조직도 매우 약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2020년 봄 이후 지금까지 교회 내에 임원들의 예전 같은 활동이나 특별한 행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깨닫게 된 것은 교회의 본질은 조직, 행정, 활동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이었지요. 특별한 교회 행사가 없더라도 예배만 살아있다면 교회는 일어납니다. 재능 많고 체계적인 임원이 없더라도 충성되고 헌신적인 예배자들이 있다면 예배는 살아납니다. 코로나의 세찬 바람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마서 12:1)” ■

**<모르고 짓는 죄>
10페이지에서 계속**

하지만 사실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에 넣고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흔한 거짓말은, 사무실이나 TV앞에 앉아서 흔연스럽게 내뱉는 “지금 가고 있다.”는 대답이라고 한다. 새해의 결의는 ‘계절의 거짓말’이 되기 일쑤이다.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무심코 거짓말을 하

는데, 그런 거짓말은 농담처럼 거의 모두가 무해하다. 그러나 양심이나 도에 어긋나거나 법에 어긋나면 죄가 된다.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물은 굵으로 흐른다는 말은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그 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남이 하는 말을 그냥 믿고, 사실인 것처럼 옮기는 사람도 죄를 받지 않을까. 예방 접종을 거부함으로써 타인 특히 어린이들에게 유행병을 전파하는 사람도 죄를 받지 않을까. ■

선교

반유대주의(Anti-Semitism)와 이스라엘

신경일

목사

(전) UNM 병원Chaplain



반유대주의를 서술하기 전에 구약성서 (old testament)에 대해 먼저 말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서 39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서이고 고난사이고 예수님의 탄생 예언서입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 400년을 위시해서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등 6개의 제국을 통해서 온갖 굴욕과 고통을 극복한 이스라엘 민족사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2절에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뜨려지리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되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굶어 죽게 한 사람 수가 11만명이고 포로로 잡혀 간 사람이 9만 3천명이고 온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이산한 이스라엘(Diaspora Israel)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1 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한 말씀같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탄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4장 32-33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Restoration of Israel,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재림 징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종말 시대 (End Time)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감합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Aliyah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 시에는 기독교인인 유대인, Christian Jew가 백명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수십만에 달하고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하는 선교가 시급 한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에 72만명, 우크라이나에 14만명,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와 남아공에 1백 14만, 미국에 6백만이고 예수 믿는 유대인이 25만이라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영광을 돌립니다. 왜 세상 나라들이 유대인을 미워할까요? 6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1) 인종설 (2) 경제설 (3) 외부인설 (4) 희생양설 (5) 신살해설 (누가 23:34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음. 진짜 살해자는 로마 병정들이었음.) (6) 선민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우리 한국에서도 수년 전에 설문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도 가운데 53%가 반유대주의자라 합니다. 유대인이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요 무정하고 오만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잔인한 민족이다. 실은 6.25전쟁 때 인천상륙 작전을 성공 시킨 맥아더 장군이 유대인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도 유대인이요 그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밥새도록 타자기를 쳐서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애절한 편지를 보내어서 UN 참전 16개국을 실현 시킴에 기여한 한국의 은인입니다.

근대사에서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시작은 가톨릭교의 교부들에 의해 시작됐다고 합니다. 성 제롬(St. Jerome, AD 347-AD420)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으며 교황이나 황제에게도 호령한 힘 있는 주교로서 유대인을 혹독하게 미워한 사람으로 유대인 회당(Synagogue)을 공격하였으며 이는 악마의 소굴이므로 마땅히 파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대인에 대한 강제 개종과 추방 살해가 뒤따랐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 밀란의 성 암브로스(St. Ambrose) 주교도 유대인 회당은 불신의 장소이고 불경건의 집이고 정신 이상자의 피난처이고 저주받는 곳이기 때문에 회당을 파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2차대전 때에는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나와 6백만 유대인 Ethnic Cleansing (민족정화) 사건(Holocaust)으로 세계를 경악하게 했지만 실패하고 히틀러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반유대주의(Anti-Semitism)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사건, 유럽의 흑사병, 유대인 대학살(Holocaust) 등으로 유대인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막힌 담이 헐려서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

선교

나의 존재 이유

이성구
탄자니아 선교사

모든 차가 그렇듯 차의 존재 이유는 운전사를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것이다. 다만 차는 길이 없으면 가지 못하게만 들어졌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주인이 늘 길이 없는 곳을 끌고 다닌다. 그래서 우습지만 생명도 없는 이 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주인인 우리가 돌밭, 자갈밭, 빨래판 길은 기본이고 자주 계곡을 뛰어 넘으라고 하고, 강을 건너라고 하고, 높이로도 빠지기도 한다. 그러다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길가에 널부러진다. 그러면 주인이 치료해주면 또 달린다. 주인을 위해...

이 자동차는 오늘도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이렇게 쓰러

져있다. 하지만 이 차가 자기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분명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라는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가? 아니면 좋은길, 편한길만 골라 가고 있는가?

오늘 자동차를 통해서 한 나침은 말씀하신다.

Mission in Tanzania 페북에서



탄자니아 마마카나 교회 교우와 함께한 이성구 선교사

(탄자니아 선교사 이성구 목사는 1980년 초반기 UNM 대학원 유학생이셨고 알버키연합감리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이셨습니다 : 편집부) ■



<반유대주의와 이스라엘> 12페이지에서 계속

이 합하여 화평하여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우리는 유대인에게 복음의 빛진 자니 이방인 우리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유대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Support(지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

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깨어서 등과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마태 25장 2절-)가 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100개의 크리스천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코빨소 박영민 목사의 인솔하에 기도 원정대가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강행군으로 유대인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시는 것에 뜨거운 기도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PS. 현재까지 50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했음)

주여 어서 오소서 Maranatha Jesus!
2022.4.10 ■

칼럼

자기 부인 (自己否認)

기독교 신앙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세상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쁨이요 계시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단지 논리적 논쟁으로 영혼을 구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자유의 삶으로 확신을 전했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공허한 말싸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산하는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광채는 결코 그의 인격이나 극기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휘를 입은 것으로, 즉 자기를 철저히 부인한 자만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임을 삶으로 고백하므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지, 메마른 논쟁에서 이기어 상대방을 제압하여 그로 하여금 복음을 배척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부인 (自己否認)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알량한 지식은 나름대로 습득했으나,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여,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를 볼 수 없었던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 속에 갇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교만하여 자기들이 선 줄로 착각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전혀 놀라운 감동도, 은혜도 되지 못하였던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단지 비상식이요, 비이성적일 뿐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만이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 열쇠임을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자기 부인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는 엄청난 사실에 무지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무지하고 약한 자신을 겸손히 시인, 자기를 부인하며 산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는 리허설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천국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차르트와 함께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작곡가, 악성 베토벤(1770-1827)의 천재적 음악성은 '자기 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사실 27세부터 청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였고, 44세 때부터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음악가로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셈이지요.

그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장병, 당뇨병, 체장 장애와 같은 무서운 질병과 함께 시력까지도 떨어져 오션지의 빈칸도 가물거릴 정도로 형편 없었습니다. 음악활동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청력과 시력이 그렇게 약해지니 말할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소리에 감격하며 환호하는 관중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 감각도,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생명없는 나무 토막 같은 존재같이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되어 버리자, 그는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 어둠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 가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는 커녕,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절절히 느끼지 않을 수 없어서, 급기야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 하였습니다. 다만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그는 주로 집에 칩거하면서 Shakespeare의 희곡,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등을 위시하여, Kant, 헤르디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섭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참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서적에 탐닉하게 되었고, 그가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인격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기에 이르렀고,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절대자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서게 되었을 때 나약하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속주의에 야합하여 돈 많은 부호들, 혹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의 눈치만 보면서 그들의 비위에 맞추어 작곡하고 있었던 초라한 자기의 진 면모를 발견하고 몸서리를 칩니다. 진지한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라는 별거벗은 존재와 처절하게 씨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거기서 전능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영원한 평안과 감사, 그리고 샘솟듯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친 듯이 오션지에서 춤을 추는 것같이 자유 하였습니다. 자신의 제한된 능력을 초월하신 전 우주적인 능력에 사로잡혀 있으니 가물거리는 오션지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능력과 재능을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인 1824년 5월 7일(금) 이었고, 교향곡 제 9번 ‘환희의 송가’를 비롯한 ‘감람산의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걸작품들이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날 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그 걸작품들을 다시 한번 대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자세로서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앞서서 아무렇게나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 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내 세우기에 바쁩니다. 거기서 결코 사람의 영혼이 머물만 한 작품이 나올 리 만무 합니다. 너무 부요하기만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합니다. 교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심어 놓으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걸림돌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짧은 생애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나

자신을 빨리 시인하여야만 하나님의 높은 뜻이 흘러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값진 보화들이 우리를 통하여 자유롭게 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살다 보면 돈도 지식도 권력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때, 소위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 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말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워 도저히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과 높은 장벽들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에야 두손 번쩍 들고 주님을 찾는 우리입니다. 지금 잘못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머무르려고 합니다. 여전히 옛성품대로 그럭저럭 귀중한 세월만 허비하며, 끈질기게 우리를 우겨싸는 것들에게서 자유 하기를 원하면서도 변화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울 게 없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별거벗기고 장대에 달려 못 박힌 채 “다 이루었다” 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신 예수! 그분이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지금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꾸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면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시각이 바뀌어 집니다. 생활 반경이 넓어 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일도 못 믿던 터인데, 하늘의 일이 믿어 지기 시작한 다니까요. 영원을, 무한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역설이며 신비입니다. 세상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대단했던 나를 부인하는 것은 본

래 내가 있어야 할 제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 라고 하는 천방지축 우상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대끼던 모순들이 말끔히 해결되는 것에 놀랄 뿐 아니라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경이로운 절대비밀— 완전한 자유를 사는 길입니다.

찬란합니다. 찬란한 봄 생기가 사방에 지천입니다. 하나님의 벅킷입니다. 이 벅킷에 참여하여 조금 미련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흠뻑 누리시며 넉넉한 행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재외동포문학상 공모

재외동포사회의 한글문학 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재외동포문학상이 올해로 24회째를 맞는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올해는 상금과 수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수필부문을 추가했다.

오는 6월 20일(월)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으로 통해 공모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일반산문 부문을 수필·체험수기 영역으로 확대했다.

또 성인 부문 「시·단편소설·일반산문(수필·체험수기)」, 청소년 부문 「중고등·초등 글짓기」, 입양동포 부문 「입양수기」를 공모하며, 거주국 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7년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경우 5년)가 응모할 수 있다.

응모 접수는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필

역사는 숨을 쉬고 있다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때때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듣다 보면 산다는 게 참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신기한 경우가 많다. 그 내력이 특별하면 더 그렇다.

남다른 고통이 있었다면 배나 대단한 삶을 살아낸 감사다. 남다르게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었다면 헤아릴 수 없이 무지 큰 은혜였다. 사람의 의술로 못 고칠 질병이었다면 감히 가까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이니, 하나님을 대면하며 한 민족을 이끈 모세에 버금가는 흔치 않은 권세가 아닌가.

워싱턴 디씨에 잘 알려진 한 금융 그룹 총수의 얘기가 재미있다. 그가 젊은 시절에 큰 꿈을 그리며 보스턴으로 향했다. 도착하여 택시를 잡고 하버드대학으로 가자고 부탁하고 가던 중, 택시 기사는 ‘하버드에서 무엇을 공부하려 하십니까?’ 물었더라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 ~ 나도 역사를 전공했는데...’
‘...?’

이 젊은 청년은 학교 앞에서 내리자마자, 전공을 Finance로 바꾸었더라는 얘기였다. 역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제와 오늘을 걸러보아야 할 과목이더라는 것이었다.

그 젊은이는 지금 워싱턴 디씨에 있는 거대한 모뉴먼트 수리비를 쾌척하며, 엄청 비싼 미술 작품들을 사서 개인 소장으로 끄라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뮤지엄에 기증하는 등 History를 그렇게 살고 있는 금융 그룹 CEO라는 얘기.

그 젊은이는 History를 그렇게 사는가 하면, 나는 비록 어쭙잖을지라도 나름대로의 그리움들을 흥얼거리며 History를 살고 싶어서 이 작은 새가슴은 분간 없이 뛰다. 그렇다. 뒤뚱거리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안에 노상 우글거리는 것들, 말하자면 그리움, 눈물, 아픔, 괴로움...뭐 그런 것들이 철 지난 옷들 챙기듯 너스레를 부추기곤 한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 하여도 눈 치켜뜨고 까칠할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민 생활을 몇십 년에 시정각이 변했다. 옛날엔 좀 천하다 싶을 정도의 소위 유행가 가요들도 지금 들으니 다 명곡이요 명작들이다. 혹 이런 지각증상을 청승맞아 진다고 해야 할지, 철 든다 라고 해야 할지... 그런가하면 때론 채 철들기도 전에 모질다 싶게 계산적인 세상살이에 길들여 버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현실적으로 재빠른 타산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추억이나 그리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한가하고 진부한 논제로 배부른 소리같이 들릴 때도 있었다. 밥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서 ‘밥’이 주제가 되다 보니 그냥 별 (star) 볼 일 없는 세상, 맹승맹승 눈물 없는 세상을 땀 흘려 사느라 때때로 맥없이 허기지곤 하는 품새다. 실제로 배 부르면 쉽게 잠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울퉁불퉁 편안치 않게, 숨 가쁘게 살아 온 것이 오히려 우리로 깨어 살게 하시는 크신 은혜였고, 눈물 나는 축축한 추억거리 명품을 살게 된 셈이다.

그리고 보면 아마도 맥놓고 퍼져 살지 않고 정신 차려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 바람이 엄청 시리고 거칠었기 때문이지 싶다.

우리가 첫 살림 등지를 틀었던 북아현동 산동네 — 그 맨 꼭대기엔 집이 딱 한 채였다. 그 집엔 방이 세 개가 있어 결국 세 가구가 사는 집이었다. 산 맨 꼭대기 집이라서 방에서 나오면 빠끔히 하늘만 보이는, 청청한 밤이면 그야말로 별들만 보이는 별천지였다.

하늘이 가까워서인지 밤낮 ‘심판 받을 자로 살아라’ 만 명명하게 들리던 곳! 팔을 뻗으면 수북히 별들을 따 안을 것만 같았었지. 산 아래 내려가서 콩나물 한 주먹 사 들고 올라오면 뜰 안에 함께 사는, 걸쭉한 사투리의 아주머니들 왈 ‘새택이! 거 얼마치고?’ 콩나물 값까지 공포해야 했던 시절! 19공 연탄 두 개로 까치방 난방하랴 아침밥 지으랴 공군 소위 신랑 기침하면 찬물에 손 댈세라 제때에 따끈한 세숫물 덥혀 대령하랴... 한 바탕씩 뒤집어엎고는 세상일 혼자 다 한 듯 자신을 대견해 하던 시절! 그땐 정말 부족이란 걸 몰랐다. 모르되, 전혀 몰랐다. 그저 둘이 함께 산다는 그것 하나가 다였었다.

아니, 아마도 그 높은 곳에서 사느라

저 아래(?) 세상을 전혀 몰랐었구나
 싶다. 지금도 눈 감으면 차르르 ~
 별뿔별들이 정보석 홍보석처럼 쏟아져
 온다. 비록 얽히고 꼬이는 세상사와
 부대끼지라도 비밀스러운 신화를
 살 듯 지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또렷또렷 생생한 그리움들이다.
 # 해방 직후에 한때 유행했던 말
 가운데 “섰다 하니 예배당이요 열었다
 하니 설령탕집이라”라는 말이 있었다.
 나는 그 시절 사람으로 국민학교
 출신이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개칭된 것은 1961년부터라는 기록이
 다. 그러니까 1910년 일본의
 테라우찌와 이완용이 이끌어 낸,
 일본의 백년대계였던 한일합방후
 일제의 잔재가 해방 후까지 건재
 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국가적 와중에서도 오직 마을을
 지켜야겠다는 우국충정의 민심이
 동네를 다스린 벌칙에 애뜻한 정을
 느낀다.

- 덜 익은 팥감을 장터에 내다 설명도
 없이 어물쩍 팔아넘긴 자에게 태형
 80대! (50센티 길이에 8센티 폭의
 막대기를 굵은 삼베로 싸서)

- 사지 멀쩡한 백수가 남의 집에
 걸식할 때에는 잡아다 맨살에 불기가
 20대였다고 하니 과연 뛰어난
 우국충정이 아닌가!

덜 익은 감을 덜 익은 뽕감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물쩍 팔아넘긴 그
 ‘속 마음’을 죄로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멀쩡한 육신을 유기하는 걸식자
 들을 불기치기로 다스려 온 그들은
 실제로 나라의 녹을 받는 높은 집권자
 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었다고 하니
 아— 보통 사람! 말만 들어도
 편안하다. 그렇다. 앞다투어 차지한

수재 1등이 아니어도 ‘속마음’
 을 다스릴 수 있는 보통 사람! 또 그
 보통 사람의 치리가 통하는 세상!
 그렇다.

지난 주일, 늘 앞자리에 앉으시던
 권사님께서 책 한 권을 주셨다.
 훈민정음이 고어체로 쓰인
 노릇한 한지 풍의 바탕에 영어로 쓰인
 책 이름 “Teens Speak”. 고어체 한글
 바탕에 영어로
 쓰여진 표지는 이미 그 내용을 예견케
 하는 것이었다. 곧 재미 한인 2, 3
 세대의 한국 사관이 마약 책으로
 출간된 것으로 아직도 새 책의 온도가
 뜨끈했다.

경운장학회(경기여고 대 뉴욕지구
 동창회에서 운영) 에서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재미 한국 학생들에게
 모국을 알고 공부할 기회를 주기
 위해, 또 다중 문화권 사회에서 당당한
 Public Speaking 능력 고취를 위해,
 무엇보다도 나라를 지키는 근본은
 정체성이니 우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국의 역사, 문화, 인물을
 주제로 하는 영어 웅변 대회 (Speech
 Contest)를 개최해 오고 있었다.

The Korean Historical Figure
 Whom I Admire Most를 첫 번째
 주제로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다.
 그동안에 수상한 학생 (9학년~12학년)
 들의 원고 77편의 모음집이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인물들은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정규 교과 과정
 과목이 아닌데다 영어로 된
 자료도 부족하여서 참여하는 학생들은
 매년 주어지는 주제에 따라 스스로
 자료를 구해야 하고 분석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요구
 되는 작업이었다.

가까이는, 사제 간이라는 아름다운
 관계가 변질되지 벌써 오래된 현실
 속에서 끔찍이 존경하는 사제 간으로
 한글학교 창시자인 한국사랑 허병렬
 선생님과 그의 열정을 웅변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붙여진 레이블(labels)
 딱지를 스스로 자르고 의연하게
 여의사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김점동! 세례받은 후엔 에스더 점동
 김으로 지금도 외친단다. 자신을 주눅
 들게 하며 우겨싸는 사회적 딱지를
 과감히 잘라 버리고 분명한 자신이
 되어 살라는 외침을 지금도 듣는단다.

백범 김구, 삼일운동, 이승만, 떨리는
 양영대군 까지, 한국의 분단, 울산
 조선소, 한국의 위안부,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할아버지의 교훈,
 자부심, 진실과 화해 등등 ... 저들의
 웅변에 하늘을 우러러 눈이 젖는다.

노소가 따로 없이 덩석 끌어안는가
 하면, 당돌하다 싶을 정도의 논쟁을
 당연시 하는 원색적인 표현을 우선
 하는 풍토에서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해야 하고 어른들의 말씀엔 절대로
 토 달지 못하며, 위아래 선후의 질서
 가 혈통을 가리는 한국의 정서를
 소화하고 그 얼의 유산을 기려 소신
 과 긍지로 한국을, 한국인을 웅변하는
 이 Korean-American 청년들의
 가슴에 천년이 흐르고 있었으니...
 여간 감사가 아니다.

그들의 역사관과 긍지가 그동안
 적잖이 염려하던 세대 간의 믿음과
 이해를 소통케 할 뿐 아니라, 덩동댕~
 꿈을 꾸게 한다. 저들이 펼치며 이어
 갈 세상을!

계절 따라 지나간 바람의 감촉이
 달랐듯이 돌아보면 우리네 삶의 맛도

대법원 낙태 관련 의견서 초안 유출로 인한 파문

지난 5월2일 미 연방대법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1973년의 ‘로 대 (對)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재 논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 초안이 유출되어 낙태권의 토대가 되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이 49년만에 뒤집힐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은1973년 당시 성폭행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던 여성의 가명 ‘로(Roe)’와 텍사스 주 정부를 대표했던 검사 ‘웨이드(Wade)’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1월에 내린 ‘로 대 웨이드’판결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낙태가 합법화 됐다. 이 판결은 임신 초기 3개월(trimester of pregnancy) 동안 산모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고, 다음3~6개월 기간엔 제한적으로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아래 기사는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 ‘아메리카 나우’에서 발표한 <‘중절권리 판례 폐기’ 초안 유출 파장>이란 제목의 소식을 허가를 얻고 전재한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연방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임신 중절 권리 옹호론자들이 시위
기자)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을 연방 대법원 의견서 초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이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오하이오주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미 전역에서 파장이 일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일,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문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3일, 낙태 찬성론자들과 낙태 반대론자들 수백 명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관 청사 앞에 몰려들어 온종일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위자들이 대답하면서 고성으로 오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각각 주장하는 바는 뭘니까?

기자) 낙태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낙태가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위에 동참한 미국 가족계획협회 회원 등 낙태 찬성론자들은 대법원이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낙태 반대 진영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함께 모여 대법원의 결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선 보수적 기독교인들과 공화당은 주로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낙태에 찬성하고 있습

<역사는 숨을 쉬고 있다> 17페이지에서 계속

쓰고 맵고 아리고 ... 그랬다. 그러나, 그러나 꿈이 있는 한, 삶은 꼭 그렇게 쓰리고 괴로운 것만은 아니었지 싶다. 어제와 오늘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Stepping Stone)를 놓느라 함께 한 값진 수고였지 않은가!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멩이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의 노랫소리를 잃어버린다고 했던가! 한국, 한국인의 역사 속을 흐르던 맵고 쓴 곡조들을 불러내어 금지로 웅변하고 있는, 300페이지가 넘는 Teens Speak 는 비매품이란다. 천년을 숨 쉬고 있는 역사를 함부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웅변인가 보다. 젖었다 말랐다 희었다 검었다를 거듭해 온 수난의 역사는 그러나, 꿈을 꾸게 한다. 역사는 숨을 쉬고 있다. 할렐루야! ■

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법원의 의견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 역시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낙태권 옹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기자들에게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면 피임이나 동성결혼 등 사생활과 관련된 다른 권리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미국 법학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의 결정에 비판하는 성명도 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낙태를 옹호하는 후보들을 국민들이 선택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에서 우리는 더 많은 낙태 옹호 상원의원들이 필요하고, 낙태 옹호 우위의 하원이 로(로 대 웨이드 판결)를 성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면, 해당 법안이 통과하고 서명을 거쳐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낙태를 합법화를 연방법으로 아예 못 박으려고 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도 3일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원 의석이 민주, 공화 각각 50석인 상황에서 법안 통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낙태권은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 화두로 떠올

랐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은 대법원의 입장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을 내고 “대법관들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명은 “유례 없는 이번 유출은 연방 대법원에 심각한 손상을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의견서가 유출된 건 미국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던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대법원은 3일, 공개된 초안이 진본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초안의 내용이 대법원이나 대법관 개인의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이러한 법원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 우리 업무의 무결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였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법원의 업무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출 경위에 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대법원이 폐기하려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짚어볼까요?

기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지난 1973년,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한 판결인데요.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했습

니다. 이후 50년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판례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이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보수가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만약에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지되면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약 절반 정도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3개 주에서는 이른바 ‘방아쇠 법(Trigger Law)’이 마련돼 있는데요. 방아쇠 법이란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만, 현재 효력을 없고 추후에 해당 법률이 효력을 갖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13개 주에서는 방아쇠 법이 효력이 발생하면서 즉각적으로 낙태가 금지됩니다.

진행자) 방아쇠 법이 있는 주는 어딴 겁니까?

기자) 아칸소와 아이다호, 켄터키 등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남서부 주들입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주에선 3일, 주지사가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는데요. 오클라호마주의 낙태법은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해서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트위터에 “나는 오클라호마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프로-라이프(Pro-life)’, 즉 낙태에 반대하는 주가 되길

<30 페이지로 계속>

영어이야기 20 - 전화기의 Pound Sign # -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K7MOK)

스페인어로 무게를 나타내는 pound(파운드)를 “libra”라 하는데, “libra”의 준말이 “lb”로서 가게의 과일이나 채소값을 보면 # \$1.95 /lb (파운드당 \$1.95) 와 같이 파운드 단위로 “libra”에서 따온 “l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시절 무게단위로 “libra pondo”가 사용되었는데, 뜻은 “pound (by) weight”로 무게를 나타내는 파운드의 뜻으로 무게의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여러번 방문한 필자의 동생에 의하면, 시장에서 무게를 재는 저울(scale or balance)을 “libra”로 부른다고 하니, 이것이 무게의 단위로도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영어권에서 무게를 나타내는 단어인 “pound”는, 음(音)은 “libra pondo”의 두번째 글자인 “pondo”에서 “pound”를 따오고, 약자는 첫번째 글자인 “libra”에서 “lb”를 따와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lb”를 모양있게 쓴것이 오늘날의 “#”이 되었습니다. 알파벳 “1”은 숫자 “1”과 구별하기위해 윗부분에 수평으로 선을 긋고 멋있게 모양을 낸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가벼운 무게에 사용하는 “ounce” (아운스) 역시, 라틴어의 unicia가 중세이태리어의 “onza”를 거쳐 oncia에서 따온말인데, 약자는 “onza”에서 따온 “o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화폐단위인 “Lira”도 “libra”에서 나온말이고,

영국의 화폐단위인 파운드도 “libra”에서 나온말로 파운드화를 표시할때 “libra pondo”의 첫자인 “l”의 대문자형(£)으로, 읽을때 “Pound”로 읽습니다. 영국의 화폐는 정식(공식)으로는 “Pound Sterling” 또는 “Sterling”이라고 부릅니다. 1 ounce는 로마시대의 pound를 12분의1로 나눈값인데, 길이인 1 피트의 12분의 1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inch(인치)가 된 내력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것은 12분의 1로 나눈것인데, 지금도 1 피트는 12 인치이며, 영국의 화폐였던 1 실링(shilling)은 12 pence입니다. Pence는 penny의 복수형으로 값을 나타내며, 수량을 나타낼때는 복수형 pennies를 사용합니다. 일상생활 예선 간단히 “p”로 표기하며 발음합니다. 12의 절반인 6 pence짜리 동전도 있는데, “인생의 굴레(Of Human Bondage)”를 쓴작가 Somerset Maughm(서머셋 모)이 쓴 소설에 “The Moon and Sixpence”(달과 6 펜스)가 있습니다. 1 파운드(£)는 20 shilling입니다. 우체국에서 무게를 재면 1 pound(450g)가 16 ounce(oz)로 계산되지만, 보석이나 가루약은 켈때는 Troy weight로 1 pound가 12 oz입니다. 이처럼 영어권에서는 12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됨을 보는데, 계란도 12개가 단위인 1 타스 (one dozen)를 사용합니다. “dozen”은 프랑스어의 “douzaine”에서 나온말로 12개의 한묶음을

뜻합니다. 계란을 12개씩 묶어 one dozen으로 팔게된 이유는, 당시 계란 한개를 1 penny에 팔수있었는데, 1 shilling이 12 pence였기 때문에 12개에 1 shilling으로 팔고 계산하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도나쓰(donuts)같은 빵도 12개씩 묶음으로 팔았는데, “Baker’s dozen”은 13개를 뜻합니다. 12개 한타스를 사면 개평으로 한개 더주는것이 아니라, 원래는 빵만드는 제빵업자들이 빵의 무게를 속여서 갯수만 맞게 파는일이 허다해, 당국에서 엄한벌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빵은 조금 크게 부풀어지기도 하여 저울이 별로 없던 시절, 빵만들어 팔던 상인들은 무게를 재기가 어려워, 벌을 면하기위해, 혹시 모자랄까봐 만일을 위해서 한개를 더넣어 13개를 넣는 경우가 많다보니 “Baker’s dozen”이란 13개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짚으로 엮은 지프라기에 넣어 팔던 우리나라의 계란 한꾸러미는 10개, 바늘 한쌈은 24개, 배추한점은 100포기를 뜻하였습니다. 영국의 화폐 one pound는 20 shilling, one shilling은 12 pence, 그러다보니 one pound는 240 pence가 됩니다. 쉬운 10진법을 사용하려면 10, 100, 1000등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영국사람도 손가락은 12개가 아니고 10개인지라, 1971년 새로이 10진법을 사용하여, 1971년 one pound(£1)를 100 pence로 바꾸고 shilling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되었으며, 5 pence동전이 shilling을 대신하였습니다. £10.40은 Ten pounds and 96 pence가 아니라, Ten pounds and 40 pence로, 계산하기 좋게되었습니다. “1p”, 즉 1 penny는 우리나라의 1원, 10원, 100원짜리처럼 값어치가 떨어져 거의 사용되지 않고, 20p, 50p가 주로 사용되며 one pound (£1) 동전은 있으나 지폐로는 없으며, 지폐는 £5, £10, £20권이 주로 일상생활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100지폐는 있으나 사용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지폐는 plastic paper로 만들어 쉽게



헤지지 않습니다. 영국은 미터법을 사용하지만 거리싸인은 “mile”로 되어있고 Gas station은 gallon이 아니라 미터법인 liter(리터)를 사용합니다. 현재 사용하고있는 UK의 화폐에 대한 이야기와 banknote(지폐), coin사진은 England의 West Yorkshire에 살고있는 친구 James Smith가 보내준것입니다. 그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파트주소를 서류나 봉투에 쓸때 방번호를 흔히 #234등으로 기호 “#”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를 number sign 또는 pound sign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판의 “#”를 “pound key” 또는 그냥 “pound”라 부릅니다. Twitter같은 Social media에서 어떤주제나 사진을 여러사람이 공유하기쉽게 tagging을 할때에도 “#”를 사용하는데, “hashtag”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는 hash, 다음에 오는 단어(word)가 tag, 둘이 합해서 hashtag가 됩니다. “tag”란 어떠한 정보에 주어진 주요 실마리가 되는 “keyword”를 뜻합니다. Social media에서 #를 읽을때, #voice는 “hashtag voice”로 읽으면 됩니다. YouTube로 한국의 사극같은 옛날 드라마를 보면, “#옛드”라는 hashtag를 종종 보는데, 이것을 click하면 우리나라 옛드라마가 확 뜹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를 주로 “pound” sign으로 칭하지만, 영국이나 Australia등 다른 영어권에서는 보통 “hash”라 말합니다. “hash”란 말은 “cross-hatching”에서 나온말로 두개 이상의 선이 각을 이루며 그어진것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가, 한자의 우물 정



(井)자와 비슷하므로 “우물 정”이나 일본처럼 샤프라고 읽는데, 음악기호인 sharp(#)는 pound sign인 “#”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음악기호인 sharp(#)는 두개의 수평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을 지며 그려져 있습니다. 반음내림표는 “flat(b)”입니다. Pound sign인 “#”는 컴퓨터 Programming 언어에서 용도가 많은 기호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Programming 언어중 하나인 “C#”는 “C Sharp”로 읽는데 음악악보의 반음올림표(#) 기호로서, 다만 컴퓨터의 keyboard에 있는 pound sign인 “#”를 사용하여 편의상 C#로 표기할뿐입니다. (C#이 원래 맞는 표기임.)



예전의 전화 Dial은 0과 1을 제외한 번호에 Alphabet도 3글자씩 배당이 되었는데, Q와 Z는 없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는 Q는 O와, Z는 2와 혼동이 되어서 뺏다고 하는데, 지금의 전화번호판은 26자 다 있습니다. 번호 7은 “PQRS”, 번호 9는 “WXYZ” 각기 4글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번호 “0”과 “1”은 다른목적으로 사용되기에 글자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0”은 operator(전화교환수), “1”은 장거리전화걸때 필요한 번호이기 때문에 “1”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Key “*”는 star로 읽습니다.



Thank you. ■

고대 상나라와 한국과의 밀접한 관계 (下)

(다음 내용은 2014년 출판 『동이 한국사』 의 저자 이기훈 선생의 『잃어버린 한국 역사: 기자조선』 이란 강의 내용의 요약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며 자료는 이기훈 선생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승우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University of New Mexico
전도사/Computer Scientist

고죽국은 1600 BC 에서 660 AD까지 있었던 나라로서 상나라의 사람들과 같이 홍산 문화 중심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건국한 나라였다. 상나라가 중원으로 내려갔다가 주나라에게 공격을 받아 망하자 고죽국 사람들과 함께 (고)조선으로 이주하게 된다. 고죽국은 지금의 북경(베이징)에서 동쪽에 있는 땅, 즉 지금의 조양시 정도 지역의 있던 나라다. 7,8세기 당나라 역사서 구당서에서는: “고구려 땅은 원래 고죽 구이었다. 주나라 시기에 기자에게 봉해졌으며 한나라 시기에 세 개의 군으로 나뉘었다.” 고죽국과 상나라가 고조선으로 이주하고, 고죽국이 고구려의 기원지라면, 고조선과 고구려를 이은 한국도 고죽국, 나아가 기자조선, 중국 문명의 창시자 상나라까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된다.



1. 상나라와 고죽국은 같은 조상들 둔 나라로 동아시아 최초문명지 홍산문화지역에서 남쪽으로 남하하였다.

2. 그 중 상나라 조상들은 중원남하, 형제국 고죽국은 요서에 그대로 거주
3. 상나라가 서쪽 주나라에 패해 조선서쪽 (고죽국) 으로 회귀
4. 상나라를 받아들인 고조선 서쪽 고죽국 (산용)의 중국 공격실패 (664년)
5. 고구려가 고죽국을 이어받음

(고)조선 서쪽에 이주한 상나라 이주민들은 3 BC에 중국 연나라 공격으로 대거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한반도를 일대 혼란에 빠뜨린다. 이들은 만주의 부여와 고구려 뿐 아니라 한반도의 지도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들은 특히 신라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 신라와 중원의 기자조선이 이어졌다면 신라를 이은 한국에 그 증거가 남아있을까? 한자를 만든 상나라의 문화는 현재 중국보다는 한반도에 더 많이 남아있다.

중국 동이문명을 이은 유물과 풍습들을 보면 이렇다.

(1) 고배



약 1700 전에는 중국 사신이 한반도를 방문하며 “여기는 아직 이런 그릇을 사용하고 있네 역시 예의를 아는 사람들 이군” 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 고배 (높은 잔) 는 중원에서 시작되어 1000 BC 정도부터 점증적으로 한반도로 퍼짐. 禮 신전앞에 풍성한 곡식을 담은 고배를 두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 제사용 그릇을 사용하는 문화는 한반도에서만 볼 수 있다.

(2) 복골



제일 오래된 복골은 최초로 홍산지역 남쪽의 (고)조선지역에서 발굴되고 그 이후로 중원에서 발굴 되었으나 그쪽에서는 일찍 사라지고 이어 한국과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點 큰 사람에 점을 찍는 모습이다.

(3) 반달모양돌칼



2,500년 전 용산(릉산)문화 영향. 돌

석 石자도 여기서 나옴.

(4) 백제의 여인



처녀 적에는 머리를 뺨아 뒤로 드리웠다가 시집가면 두 갈래로 나누어 머리위로 틀어 올린다. 옛 한국에서는 아내가 될 여자는 머리를 올린다. 이것은 한반도의 풍습이다. 중국 학자들은 여자를 약탈하거나 취한다란 뜻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여자가 결혼 후 머리를 올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5) 절하는 풍습



중국은 무릎꿇어 절하는 풍습이 없다. 공자도 무릎꿇어 절하는 것을 싫어했다. 절 배 배 - 오른 손 아래에 횡이 그어져 있는 것을 아래를 의미한다. 정식으로 절할때 왼손이 오른 손 위로 감. 이런 절을 풍습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 없다. 청나라때는 절하는 것이 있어 보이지만 청나라 왕족들은 (고)조선족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문화적으로는 한국인들과 비슷한 점이 더 많다. 1700전에 왔던 중국 사신이 백제의 사람들이 절하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었다.

(6) 앉는 자세

사귄 교 交; 다리를 꼬고 앉는 것. 중국 사람들은 의자와 침대 생활을 하기 때



문에 이렇게 앉지 않는다.

(6) 옷의 기원



배울 학 學 네개의 나무 토막을 두손으로 던진다. 아이가 옷판앞에 앉아 있는 것. 점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옷놀이가 아니라 옷점임. 새해에 옷점을 치는 것이다. 옷점 책을 배우는 모습. 교 教 옷점을 아버지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이 풍습은 새해 옷놀이로 아직도 한국에만 남아있다.

(7)제사 모습



尊 높을 존: 두손으로 잔을 높이 드는 모습. 한국에서만 제사 지낼때 이런 모습을 아직도 볼 수 있다.

(7) 옷깃

옷 의 衣 : 옷깃을 보면 오른쪽 옷깃이 왼쪽을 덮고 있다. 고구려 벽화에서 고구려 초기때의 모습을 보면 중국 사신과 달리 오른쪽 옷깃이 왼쪽을 덮고 있



으며 바지를 입고 있다. 좌임이라고 한다. 한자는 고대 한국인의 풍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8) 여인의 앉은 자세



女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다. 여자가 무릎꿇고 있는 자세는 당연한게 아니다. 전 세계에서 여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 중국인들은 꿇어 앉는 것을 싫어한다.

(9) 춤 무 글자의 장식



舞 춤 무 : 1888년 영국부영사 W.R. Carles 가 쓴 조선전문기에서 보이는 춤추는 조선 여인들이다. 손에 주령주령 장식을 달고 춤을 추는 모습이다.

이렇게 고대 중원 문명은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기자조선이 신라(뜻 새나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호에 계속하기로 한다.



세례를 받기 앞서

성종근

산타페한인교회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연구원



예수님 알기 전의 나

대학 시절의 봉사 동아리 활동이나 많은 주변 지인분들의 권유로 기독교와 그 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은 거절하였습니다. 매번 거절하는 순간이 죄송하였고, 급기야 나중에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만큼은 나 자신이 결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지인들을 '위해' 다니는 것이 다니지 않는 것보다 큰 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산타페 교회 다니면 서의 나

2019년 3월 이곳으로 건너오면서 개인적인 친교 관계로 인해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닿았습니다. 마음가짐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단순히 맘에 내키지 않는다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 보는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먼저 해외에서 공부했던 선배나 친구의 강권 또한 있었습니다.

이 곳 산타페 교회에 다니면서 우선 김석훈 목사님의 말씀이 복음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만 생각하고 있던, 외람되지만 연세가 지긋하시며 현대 구어체와는 다른 성경 말씀을 고집하던 목사님이 아니고, 항상 주변에서 누구나 겪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을 던져 주시는 말씀은 선입견을 해소하는데 충분했습니다.

다음 계단은 성경 공부였습니다. 너무도 부담스러운 성경 공부에 대한 제의

를 받았을 때 또 다시 망설였지만 처음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던 마음처럼 겪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선입견과 반대로, 다소 황당하고 어폐가 있는 질문에도 차분히 저의 대화를 이어주시고 스스로 대답을 이끄시게 도와주신 장종혁 장로님과 교우분들이 있어 다시 한 번 하나님과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목사님과 귀중한 1:1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때 역시 저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진로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현재 직업의



특성상 저의 기도는 한 주의 생활을 성찰하고 주변을 위해 생각하는 기도에서 점점 기복 신앙처럼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말씀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초신자가 마치 특권인양 초신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할 정도로 순진한 사람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그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점점 생활 속에 신앙이 녹아들면서 한없이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교인의 삶에 대해 주변의 삶을 지켜보면서, 현실적인 부분에 실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예배드릴 때 예수님께 제 삶의 중심을 내어 드리라는 말씀과 기도를 받지만, 아직도 그 중심을 온전히 내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의 나의 결단

그런데 놀랍게도 앞서 말씀 드린 일련의 과정은 예수님께 저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릴 때만이 제가 느끼고 성장함을 실제로 증명해 준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출석을 거부하다가 다녀봐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순간, 예배 말씀에 감동했던 순간,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깨우쳤던 순간, 이 모든 것은 '제'가 스스로 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난 변화의 순간이라기 보다는, '그래 해 보자', '그래 일단 해 보자'라는 순응의 찰나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온전히 저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서 내어 드려야겠다, 내어 드리고 싶다,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마음만은 간절합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랑도 불꽃 같은 사랑이 있지만, 항상 주변에 있다가 어느 날 문득 흠뻑 빠진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신앙생활은 후자와 같습니다. 다소 걸음이 느려 뒤쳐지는 길일지라도, 아직 교만하고 부족하여 방황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따르고 사랑하는 그 길이 앞으로는 이번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목표로 보다 정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늘 기도에 말씀 드리는 것처럼, 저에게 교만과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

기행문

봄날... “모녀여행~~”

어느새 델러스에도 블루 버넷(Blue Bonnet)이 활짝 핀 봄날이 왔다, 지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 답답함을 묻어버린채 블루 버넷은 모든 들판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며 얼굴을 내밀었다. 봄은, 만물의 생명체가 잉태되어 번식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긴 겨울 동안 잠들어있는 모든 생명체를 깨우며 돌아 오르고, 우리에게도 봄은 새로운 각오와 이념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로 시작하게 한다. 이제 묶은 바이러스를 이기고 서서히 나라마다 격리를 풀며 외국인을 예전처럼 받기 시작했고, 드디어 한국도 3차 접종증을 가지고 자가 격리 면제를 할 수가 있으나 반드시 48시간 전 PCR Test를 받고 음성판정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출국할 수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모국방문을 기다려 왔든가? 나도 코로나로 인해 멀리서 사시는 친정엄마를 자유로이 뵈 수가 없었다, 오랜만에 오신 엄마를 위해 무엇을 해 드려야 하는 고민 끝에 간만에 택한 모녀여행을 멕시코 칸쿤으로 모시기로 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어디를 갈지 검색하게 된다.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닌 2인 이상이 갈 때면 항상 고민하는 비용, 비행시간을 최소한 줄이며 갈 수 있는 곳, 항공기, 호텔, 식사 그리고 현지 투어까지 경비하면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경비를 쓰고 울 수밖에 없다. 어린 자녀들의 어리광을 받아주며...연세 드신 어른들을 모시고 다니기에 적합한 곳....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자고, 거기에 문화탐방까지 곁들인 최고의 인기 절정인 곳이 바로 칸쿤 멕시코이다. 델러스에서 항공으로 2시간 20분...도착할 때쯤 날개 아래를 내려다보면 파란 에메랄드

바다가 환상이죠, 가슴으로 스며드는 칸쿤... 이제 떠나 보실까요? 칸쿤 멕시코는 중앙아메리카 남쪽 끝 유카탄반도에 바다를 끼고 있으며 미국 텍사스에서 가장 가까운 카리브해안 도시이다.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



용하며 17,000명 정도의 원주민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항상 분주하다. 푸른 하늘이 맞닿는 바다의 문화 이야기, 유카탄의 보물이라고도 말하는 마야 유적지들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1988년에 등재되어있다. 공항에 도착하면 출구부터 현지 지상사, 가이드들이 손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포함되어있다. 훈훈한 바람과 함께 가벼운 칵테일 한잔으로 호텔로 들어서면 에메랄드 빛 바다가 가슴을 적신다. 여행의 시작은 휴식, 모든 일들은 어깨로 넘기듯 생각지 말자, 지금의 시간을 즐기며 탐닉하자 그리고 우선은 오후에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할까? 를 생각해 보자...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지 않은가?

칸쿤의 호텔 대부분은 식사 일정 포함(All Inclusive), 즉 모든 식사, 주류 등이 포함되어있고 자유로이 드시는 뷔페 또는 각기 다른 레스토랑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나, 미리 도착해서 예약에 한해서 드실 수 있다. 다소 레스

송은숙

대한관광여행사사장
World Express
Travel & Tour
Dallas TX



토랑의 규칙에 따라 예의를 갖추는 옷차림이 필요하다.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정장, 집안일을 위한 편한 옷차림에 비해 바다를 끼는 휴양지의 식사도 예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저녁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기는 손님들의 분위기와 음식의 문화를 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뷔페를 이용하실 때는 편안한 복장과 신발은 괜찮으나 레스토랑을 이용할 시에는 복장 코드가 있다, 가령 여성분인 경우 센달은 괜찮으나 남성분들의 경우는 앞이 트인 신발이나, 칼라가 없는 티셔츠라든지, 또는 반바지 차림으로는 입장할 수가 없다. 식사 후의 훈훈한 바닷바람과 함께 노을을 지켜보며 모래사장도 거닐어보자, 이제까지 느끼지 못한 신선한 마음과 함께 힐링이 시작된다. 저녁이 끝날쯤 노을이 지게 되면 화려한 밤의 왈츠가 시작되고 멕시코의 정열적인 춤과 노래, 음악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미 저녁과 함께 마신 칵테일 한잔, 드킬라 한잔의 취기가 벌써, 마음은 흥분의 시작으로 어느새 어깨와 허리가 들썩이게 된다.

칵테일 “마가리따 “ 를 마셔보셨나요? 칸쿤에서 꼭 마셔야 하는 1번째 마가리따 칵테일 이다. 새콤한 라임으로 짙 짜낸 즙과 자연산 아카페 선인장으로 만들어진 술 “드킬라” 그리고 소금으로 입맛촉해서 마시는 향과 맛이 그만이다. 바닷소리에 어울려진 불빛과 기분 좋은 만큼의 취기, 흥겨운 노래와 춤은 옆에 있는 그대가 멋지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이제껏 보지 못한 멋진 바다, 가져보지 못한 색다른 느낌 그리고 기대감에 더욱 치장하고 노력한 오늘 이 시간을 즐기기에 충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화려한 광란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조신한 우린 잘 차려진 진수성찬의 뷔페 음식에 기분이 좋다. 내가 만드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 대신 해주는 맛난 음식이 한없이 차려있는 잔칫상을 나도 맛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오랜만에 나를 위해 만들어준 정성에 감사하자. 오늘은 무엇을 하며 지낼까? 사람에 따라 휴양지에서 푹 쉬다가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유롭게 호텔의 모던 식사, 주류를 즐기며 해양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여러 날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난 그 고장의 흥미로운 문화 체험과 역사를 알고 싶어서 관광을 선택해 가본다. 다른 카리브해에 비해 비교적 많은 마야 유적이 있으니, 떠나기 전에 꼭 알고 가야 할 기본상식을 준비해가면 역사가 머릿속에 들어온다. 캄쿤 멕시코에서 유명한 몇 가지를 소개 해 본다.

*치찬이자(Chichen Itza)

유카탄의 보물이라 일컫는 이곳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측한다(400

A.D). 그 옛날 영특한 마야(Maya) 사람들은 가장 힘세고 튼튼한 전성기 일 때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세워진 쿠클칸 피라미드는 신비



스럽게도 그때의 시간과 달력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피라미드는 4면의 층계 각 91개의 계단과 (El Castillo)상단의 계단까지 합쳐서 365일의 달력을 이용해 왔다. 해가 뜨고 지나가는 그림자의 위치에 따라 시간

을 알렸으니, 시대가 다를 뿐 미야인들의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재성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야인들은 쿠클칸이라는 신을 섬기며 그 모양이 털 달린 뱀이라 믿어 왔으며 매년 춘분과 추분에 걸쳐 북쪽 계단의 모서리를 통해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다, 해가 질 무렵, 마치 뱀이 꿈틀거리며 내려오는 환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펠로타 경기장 (Juego De Pelota Ball Court)

클쿠칸 피라미드 북서쪽에 마주 보고 있는 거대한 운동 경기장은 그 시대의 열광적인 공놀이를 즐겨왔던 곳이며, 건강하고 힘센 장정들만을 골라 2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했다. 특이한 것은 공 경기장의 꼴대가 경기장 중앙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은 손을 사용할 수 없이 팔꿈치와 무릎 그리고 엉덩이만을 이용해서 경기장 높은 꼴대를 통과시켜야 득점을 내며 이길 수 있었고, 이긴 장수들은 영광의 죽음을 제물로 그들의 심장을 신에게 바쳤으며, 그 가족들에게는 명예와 부를 보장해 주었다고 한다. 그 시대의 왕권 권력과 같이 힘이 센 장수들을 인신 제물로 바쳐서 권력을 보호해 왔다고 전해진다.

*여인의 섬 (Isla Mujeres)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해서 발견한 이곳은 캄쿤에서 8마일 정도 떨

어진 조그마한 섬이며, 청결하고 깨끗한 바다. 그리고 캄쿤에서 보는 바다와 달리 청록색을 띤 아름다운 섬이다. 그 옛날 마야 사람들은 신을 무서워하여 질병

으로부터 자식의 목숨을 잃는 두려움에,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한 이 섬을 찾아 아이를 출산하고 면역이 강해지면 돌아왔다 하여 “여자의 섬”이라 불린다. 이 아름다운 섬은 보트/페리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가 있으니 관광을 이

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며, 투어 상품에는 스노클링도 포함되어 세계 10대 바다 North Beach에서 같이 해양을 즐길 수 있다. 이 섬의 면적은 총 4.3마일, 넓이가 2,130ft이며 12,700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조그마한 원주민 마야 사람들의 공예품과 수예품 그리고 마얀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엑스카렛 해상 공원 (Xcaret Park)

엑스카렛의 뜻은 “조그만 항구만”이라 한다. 마야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지역을 통해 많은 물물교환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갔으며 무역관 역할을 해오던 곳이다. 또한 지금은 캄쿤에서 제일가는 최고의 해상공원이라 불린다, 푸른 에메랄드 바닷속의 자연을 최대한 살려서 헤저터널을 이용한 다양한 물놀이를 하루종일 할 수가 있고, 물놀이를 즐기지 않는 분들도 그 밖의 수족관이나 동물원을 이용해 더위를 식힐 수 있고, 어린 자녀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자연 체험을 할 수 있어 유쾌하다. 자연 헤저 동굴을 지나 바닷물의 낮은 깊이를 통해 스노클링을 할 수 있으며 식사도 자유롭게 몇 가지를 골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 저녁이 무르익을때쯤이면 마야 사람들의 전통무용과 쇼를 관람할 수 있어 긴 하루의 시간이 모자라는 듯 하다. 해상공원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마야 사람들의 전통 놀이와 각종 해상 스포츠를 통해 캄쿤 마야 시대를 배울수 있다.

이외에도 캄쿤에서는 더욱 관광할 곳이 많다, 어린 자녀들과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다니기에는 다소 힘들 수 있겠지만 누구나 함께 힐링하고 휴가를 즐기기에 아주 적당한 나라이다.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도 더욱 정답다.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깝게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기에 최고의 휴양지이다.

엄마! 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과 > 9 페이지에서 계속

- 러시아가 자국 국영 매체 차별 또는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접속을 차단했다.

3월5일

- 삼성전자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6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
- 삼성전자가 러시아 내 스마트폰 생산을 중지하기로 했다.
- 코카콜라가 러시아에 대한 생산 라인을 전면 가동 중단했다.

3월6일

- 세계 최대의 국제결제 카드사들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러시아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미국의 소리가 미국인 3,000명이 우크라이나의 국제 군단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3월7일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 3월8일
- 러시아 제41군 참모장 비탈리 게라시모프 소장이 하르키우 인근 교전에서 전사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50만달러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 세계은행 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7억 2300만 달러의 지원을 결정했다.

3월9일

-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펍시, 유니버설 뮤직 그룹, 아디다스가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 하르키우, 체르니히우, 수미, 마리우폴은 포위당하고 계속 심한 포격을 받는 중이다.
- 한국 정부가 휴대용 산소발생기, 응급치료키트, 의료 도구, 담요 등 1000만 달러 규모의 긴급의료를 지원했다.

3월11일

- 미국 상원에서 136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5억 유로를 추가 지원했다.
- 유튜브가 전 세계에서 러시아 국영매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
- 우크라이나 측에서 러시아군 장성 한 명을 또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사망자는 제29군 사령관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소장이다.

3월13일

- 우크라이나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개전 이후 전차 353대, 경장갑차 1,165대, 야포 125문, 방사포 58문, 항공기 57기, 헬기 83기를 포함해 총 12,000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3월15일

- 러시아 국가근위대 총사령관 빅토르 졸로토프 대장이 '진격이 우리의 기대보다 느리다'며 사실상 목표 달성의 실패를 인정했다.
-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3개

국의 총리들이 EU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기차를 타고 키이우를 방문했다.

3월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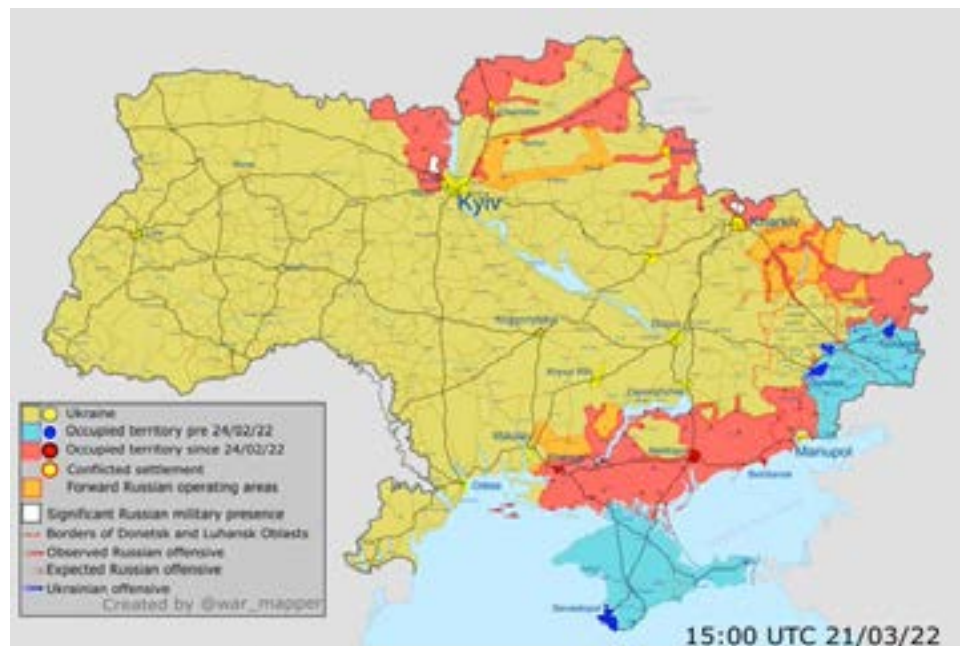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 정전 협상의 막후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지난 주 푸틴을 직접 대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 현재 참상에 대한 영상을 보여준 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연설이 끝나자 전원 기립하여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

3월17일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은 전쟁 범죄자'라고 말했다. 또한 드론과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 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3월18일

- 푸틴 대통령이 루즈니키 스타



현지시각 03.21. 기준 우크라이나 전황 지도

디움에서 열린 크림반도 병합 8주년 기념 콘서트에 참석해 '군사작전'은 돈바스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3월19일

- 마리우폴 시장이 직접 러시아군이 시의 중심가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 러시아의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전 부총리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반전 의사를 드러냈다가 현직에서 해임당했다

3월20일

- 수미 지역의 러시아군 수송대가 격파되었다.
- 우크라이나군이 이지움 회전에서 러시아군 병력을 격파하는데 성공했다.

3월22일

- 유엔은 우크라이나에서 2,4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전쟁 종식을 위한 교황청 차원의 중재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탈리아 의회에서 합동 화상연설을 가졌다.

3월23일

-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본 국회에서 화상 합동연설을 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러시아에 대한 대응에 들어갔음을 감사한다고 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이 프랑스 상/하원 동시 연설 중 러시아 시장에 잔류중인 프랑스 대기업들의 러시아 철수를 촉구했다.

3월24일

- 나토는 러시아 측 전사자를 최소 7,000명에서 최대 15,000명으로 추산했다.

- 사상자수를 최대로 잡는다면, 러시아군의 전사자 수가 소련-아프가니스탄 10년간의 전쟁에서의 총 전사자 수인 15,000명을 불과한 달만에 넘어서거나 최소한 근접했다는 것이 된다.

3월25일

-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을 방문했다.
-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지휘부를 공격했는데 이 공격으로 야코프 레잔체프 중장이 전사했다.
-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반격과 과도하게 확장된 보급로로 인하여 후퇴중이며, 이러한 결과로 우크라이나가 키이우 동쪽 35km 떨어진 도시와 방어 진지를 재점령했다.

3월26일

- 헤르손에서 러시아 제49 제병합동군 사령관 야코프 레잔체프 중장이 폭격을 맞고 전사했다. 이로서 러시아군 장성 중 벌써 7명이 이 전쟁에서 한 달 만에 목숨을 잃은 셈이 되었다.
- 유럽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바르샤바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 올렉시 레스니코프 국방장관과 만나 40분간 현 사태를 논의했다

3월27일

- 우크라이나의 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승리의 날 5월 9일 전까지 전쟁을 끝내겠다는 계획이 있으며 러시아군 내부에서 선전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3월29일

- 러시아 국방부는 키이우, 체르니히우에서의 군사공격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의 강한 저항에 러시아는 퇴각하는 것이라고 우크라이나측은 평가했다.

3월30일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로 약 1시간 동안 대담했다.

3월31일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예산 지원"으로 5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 젤렌스키 대통령이 호주 의회 화상 합동연설을 했다.

4월1일

-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무기 선적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되었다. 3월 14일에 약속된 3억 5천만 달러 어치 무기가 모두 도착했으며 앞으로 2주 이내에 추가로 8억 달러에 해당하는 지원이 도착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 관리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 현재까지 발생한 우크라이나 난민은 총 405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58%는 폴란드로 피신했다고 한다.
- 러시아 벨고로드 주지사는 저고도로 러시아에 진입한 우크라이나군 Mi-24 헬리콥터 2대의 공습으로 벨고로드 석유저장고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오피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로 인해 누적된 피해와 방사능 때문에 체르노빌에 주둔하던 러시아군은 전부 도주했다. 그런데 체르노빌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이 그곳의 컴퓨터, 커피 메이커와 주방용품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한다.
- 우크라이나군이 지키고 있던 이지움이 함락되었다.

4월2일

-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이 날 개최된 특별 공여 회의에 참석해 35개 이상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장갑차와 장사정포를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 이들 국가가



지원하는 병기 중에선 전차와 전투기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여기엔 한국과 일본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4월5일

-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북쪽에서 완전히 철수 했다.

4월6일

- 트위터가 푸틴 공식 계정을 포함해 러시아 정부 공식 계정 300여 개의 노출을 제한했다.

4월7일

- 러시아가 젤렌스키에게 자신들이 정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영구 금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지역인 루간스크·도네츠크의 분리 독립, 크림 반도는 러시아에 영구 종속이 골자가 되는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침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대여법을 부활시키기 위한 주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를 제외하고 공세에 필요한 전차와 전투기 등의 병기를 보내줄 수 있게 된다.

4월8일

-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유

엔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번 표결로 인해서 러시아는 2011년 리비아에 이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퇴출당한 두 번째 나라가 됐다.

- 캐나다가 IMF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10억 캐나다 달러(미화 7억 9,40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파손된 우크라이나 기갑장비를 수리해 주기로 합의했다.

4월9일

-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키이우를 방문하여 젤렌스키와 향후 경제 및 군사 원조에 관해 회담하였다. 회의 후 영국정부는 120대의 장갑차와 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4월10일

- 마리우폴 라디오 방송국을 지키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의해 포위되자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란 말을 외치며 라디오 방송국과 함께 자폭했다.
- 우크라이나 이르핀 주 보젤과 이르핀에서 러시아군이 신학교를

짓밟고 약탈했으며 수백 권의 성경을 불태웠다는게 밝혀졌다. 반면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성전이라고 옹호·미화하고 있다.

4월11일

- 폴란드가 T-72 전차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시작했다.
- 젤렌스키가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에서 약 50여명 전후의 정치인을 대상으로 연설을 진행했다. 재적 인원 300명 중 50명 가량밖에 안 되는 매우 저조한 참석률이였다.

4월12일

- 젤렌스키 한국 국회 연설 홀대 논란을 가지고 러시아가 '아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한다.

4월13일

-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에 150만 달러를 기부했다.
- 3월 16일 바이든이 승인한 8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패키지와 지난주 승인한 1억 달러 규모의 수송품 중 마지막 물품의 인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패키지에는 폭발물로 무장하고 목표물에 날아갈 수 있는 스위치블레이드 드론, 스티어링 지대공 미사일,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포함한 유도 무기 등이 포함됐다.

4월14일

- 슬라바급 순양함 1번함이자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가 오데사 근해에서 우크라이나 제 넵툰 대함 미사일 2발을 맞고 대파되어 완전히 침몰했다.

4월15일

-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장갑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4월19일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규모 공격을 개시했다.

4월20일

- 키릴 총대주교의 전쟁 찬양 발언을 계기로 러시아 정교회가 둘로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21일

-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으며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

4월22일

- 슬로베니아가 유고슬라비아 M-84A4(T-72 개량형) 54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할 것임을 밝혔다.

4월23일

-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우크라이나 경제 개발 자금으로 1억 3100만 달러(한화로 약 1천 6백억 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핀란드 의회가 NATO 가입 안건을 다수결로 찬성하였다.

4월25일

- 마리우폴 시장은 2만 명 이상의 마리우폴 시민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 폴란드의 한 재벌이 우크라이나에 열차 40량, 약 500톤에 달하는 물자를 보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기자회견으로 찾아온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및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과 회담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3억 220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4월28일

- 미국 상원에서 4월 8일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한데 이어 4월 28일 하원에서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0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 우크라이나 채널을 통해 올라온 영상에 의하면 이스라엘 용병이 참전하기 위해 도착했다.
- 4월 28일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지역에서 계속 물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펜타곤은 우크라이나로 공여하기로 한 곡사포 90문 중 절반을 전달했으며, 5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보로얀카, 부차, 이르핀을 방문해 “전쟁은 악이다. 비참한 현장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희생자들과 함께 한다”고 말했다.

4월29일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3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결의했다. 204억 달러는 군사 및 치안, 60억 달러는 향후 군비 증강, 40억 달러는 외교 활동에 쓰일 것이다.
- 미국 하원에서 무기대여법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대통령의 사인이 기재되면 법안은 완전히 통과된다.

4월30일

- BBC 러시아 지부는 러시아군의 돈바스 공세가 흐지부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러시아군은 2주 ~ 4주 후에 러시아군은 돈바스 전역에서 패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러시아는 과학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약 12억 루블을 들여 300명의 과학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5월1일

- 미국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

령과 만났다.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UN의 보호 아래 아조우스타에 남아있는 민간인의 대피가 시작되었다고 트윗을 했다.

5월2일

-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미군 예비역 해군 제독은 “두달 만에 최소 12명의 러시아 장군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전사했으며 이것은 현대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러시아군을 혹평했다.
- 핀란드가 5월 12일 NATO에 공식적으로 가입신청을 한다고 한다. 이어서 스웨덴 역시 6월전에 가입예정이라고 한다.

5월3일

- 미군은 우크라이나에 지난 24시간 동안 14편의 항공운수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

<대법원 초안 유출 파문 > 20 페이지에서 계속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판결이 뒤집힌다고 해서 미 전역에서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건 아니란 얘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일부 민주당 소속 주지사는 대법원의 판례가 뒤집히더라도 낙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일부 주에서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면 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낙태가 허용된 다른 주로 이동해서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낙태 지지 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는 낙태가 금지되면 저소득층 여성과 소수계 여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일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한인교회

(Albuquerque Korean Presbyterian Church:PCA)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교회 홈페이지: www.abqkc.org
 새이스라엘 월간 홈페이지: www.abqnim.com
 예배처: 13804 Spirit Trail Place NE Albuquerque, NM 871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 10:00 am (Sunday)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 (화,오전), 성령기도회 (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p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p>알버커키 Albuquerque</p>	<p>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p>	<p>식당 Korean Restaurant</p>	<p>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p>	<p>중재서비스</p>
<p>건축/페인트 Painting</p>	<p>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p>	<p>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p>	<p>식품점 Korean Grocery</p>	<p>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p>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p>	<p>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p>	<p>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p>	<p>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p>	<p>치과 Dental Clinic</p>
<p>공인회계사 CPA</p>	<p>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p>	<p>Asahi Express 2106 Central Ave. SE Ste.A ABQ (505)243-8089</p>	<p>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p>	<p>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p>
<p>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p>	<p>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p>	<p>Asian Pear 8101 San Pedro Dr. NE, Ste D ABQ (505)766-9405</p>	<p>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p>	<p>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p>
<p>단요가 Dahn Yoga</p>	<p>변호사 Law Firm</p>	<p>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p>	<p>이발소 미장원 Hair Cut</p>	<p>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틀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p>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p>	<p>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p>	<p>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p>	<p>태권도 TaeKwonDo</p>
<p>리커스토어 Liquors</p>	<p>부동산 Realtors</p>	<p>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p>	<p>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p>	<p>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p>
<p>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p>	<p>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p>	<p>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p>	<p>자동차정비 Auto Repair</p>	<p>한의사 Acupuncture</p>
<p>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p>	<p>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p>	<p>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p>	<p>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웹사이트:thegaragenm.com</p>	<p>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p>
<p>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p>	<p>세탁소 Dry Cleaners</p>	<p>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p>	<p>주택용자 Loan Officer</p>	<p>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p>
<p>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p>	<p>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p>	<p>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p>	<p>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p>	
<p>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p>	<p>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p>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 연락주세요.

<p>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p>	<p>병원 Clinic</p>	<p>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p>	<p>식당 Restaurant</p>	<p>화밍톤 Farmington</p>
<p>화원/원예 Nursery</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p>	<p>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p>	<p>박성희/신속희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p>상점 Store</p>
<p>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p>	<p>리커스토어 Liquors</p>	<p>치과 Dental Clinic</p>	<p>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lupe St. Santa Fe (505-470-1561) Hee Joo</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p>호텔 Hotel</p>	<p>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p>	<p>Los Lunas Smiles Dr.윤자 정219 Co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p>	<p>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p>	<p>리커스토어 Liquors</p>
<p>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p>	<p>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p>	<p>산타페 Santa Fe</p>	<p>식품 Korean Grocery</p>	<p>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p>
<p>라스베가스 Las Vegas</p>	<p>미장원 Hair Salon</p>	<p>손톱미용 Nails</p>	<p>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p>	<p>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p>
<p>치과 Dentist</p>	<p>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p>	<p>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p>	<p>치과 Dentist</p>	<p>클로비스 Clovis</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p>리오란초 Rio Rancho</p>	<p>변호사 Law Firm</p>	<p>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p>	<p>식당 Restaurant</p>
<p>라스크루세스 Las Cruces</p>	<p>리커스토어 Liquors</p>	<p>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p>	<p>광야의 소리</p>	<p>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p>
<p>공인회계사 ACC</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p>	<p>노영준 변호사</p>	<p>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2년 5/6월호 발행일 : 2022. 5. 5.</p>	
<p>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p>	<p>로스루나스/벨렌/버나리요/보스키파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p>	<p>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p>	<p>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p>	<p>광야의 소리</p>
<p>카페/ 선물 Cafe/Gift</p>	<p>리커스토어 Liquors</p>	<p>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p>	<p>출판부:신옥주 (Ok-Ju Shin)</p>	<p>QR Code</p>
<p>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p>	<p>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p>	<p>출판부:신옥주 (Ok-Ju Shin)</p>	<p>출판부:신옥주 (Ok-Ju Shin)</p>	<p>QR Code</p>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www.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201 Third St. NW Suite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 888-1335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얼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마이클 박

광야의소리 인쇄비는 광고를 통한 후원과 독자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메일: voiceofnm@gmail.com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 0K41143
NM Lic. 17684619
earlitos3840@gmail.com

은퇴플랜 생명보험 401K Rollover
학자금 롱텀케어 텍스절세플랜

**당신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Check Points:

- 평생을 보장받는 은퇴연금을 준비했나?
- 중병이나 만성질환에 대비하고 있는가?
- 세금 절세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Call Today!

213-321-8787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

2022년 한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해당지역

- ▣ 콜로라도, 캔자스,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와이오밍주
- ▣ 해당지역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자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에 대상.
- ▣ 유학생, 한번 받았던 학생들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4월 1일 - 6월 30일

장학금액

일인당 \$2,000 (단 고등학생은 \$500)

문의

- ▣ msrc.chair@gmail.com
- ▣ Sukie Kang (Scholarship Committee Chair, 720-318-6033)
- ▣ Philip Yun (President, 303-755-1124)

한미장학재단은 1969년 창립되어 지금까지 지난 53년간 약 7,300의 학생들에게 \$11.5-million이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2018년에 새로 창립된 저희 Mountain States Regional Chapter(MSRC)도 지난 3년간 약 \$83,000 의 장학금을 모금 수여하였고 2022년 올해는 약 \$40,000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각 챕터는 자체 모금으로 해당 구역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후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관심있는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장학금 신청은 웹사이트 kasf.org로 접속하여 "Apply Now"를 클릭, Mountain State로 신청하시고, 한미장학재단은 전미 50개주를 다 포함해서 다른 주에 있는 학교에 재학 또는 지원자는 해당 챕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대학 입학 FAFSA 신청 양식과 흡사합니다. 많은 지원 신청 바랍니다.